

The Japan Exchange and Teaching Programme



JET프로그램 경험담



● KJET 15기 김수해 도야마 현	1- 3
● KJET 20기 유욱영 아키타현 다이센 시	4- 6
● KJET 20기 권주현 홋카이도 니세코 정	7- 8
● KJET 20기 김후진 시마네현 마쓰에 시	9-10
● KJET 10기 윤미령 히로시마 현	11-12
● KJET 14기 박진미 이시카와 현	13-14

※ 여기에 실린 글과 이미지는 무단으로 전재, 편집, 재배포 등을 절대 금지합니다.

Embassy of Japan in Korea



CIR 도야마 현 근무 2007~2010년

1. 두 번째 도전

지금도 문득문득 생각날 때가 있습니다. '눈 내리던 날 내 손을 잡아주던 이와세초등학교 3학년 여자아이는 지금쯤 고등학생이 되어 있겠지?' '한국어로 천진난만하게 말 걸어주던 그 아이, 지금쯤 사회인이 되어 있을까?' 국제교류원으로 근무했던 3년간 도야마에서 함께 했던 사람들의 얼굴이 가끔 스쳐 지나가는 순간이 있습니다. 2007년 4월, 서울에서 도야마의 벚꽃을 볼 수 있길 손꼽아 기다리던 순간, 그리고 곧 눈 앞에 펼쳐졌던 현청 앞 마쓰가와 강가에 벚꽃잎 흩날리던 첫 날의 풍경은 시간이 지나도 설레던 그 느낌 그대로, 환하고 선명한 기억으로 남아있습니다.

대학 졸업 후, JET프로그램 시험에 한 번 낙방을 하고, 두 해 가까이 나름 전공을 살려 취업한 회사생활을 이어가던 중, 다시 머릿속에 떠올랐던 'JET프로그램', 새로운 세계를 마주해 보고 싶다는 마음과 '내가 국제교류원이 된다면 어떤 그림을 그리게 될까?'라는 작은 기대감에 다시 한번 용기를 내서 문을 두드리게 되었습니다. 회사생활을 하며 이수해 두었던 한국어교사 양성과정과 혹시나 시골에 부임하면 유용할듯 싶어 따둔 운전면허증, JET시험준비를 위해 가입했던 스터디 모임과 주말마다 도서관에 들러 시사상식 책을 열심히도 찾아봤던 기억이 새롭습니다.



〈 도야마 국제센터에서 바라본 다테야마 전경 〉

합격에 대한 100%의 확신은 없었지만, 하고 싶은 일에 도전한다는 설렘은 자신에게 즐거운 자극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2. 또 다른 세계, 그리고 '나'에 대한 새로운 발견

도야마는 대학시절 교환학생으로 1년간 지낸 적이 있어, 도야마 현청 국제과로 부임하게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는 마치 고향으로 돌아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익숙한 곳에서 나를 맞아주는 그리운 얼굴들과 곳곳의 낯익은 풍경은 여전히 반가웠습니다. 도야마 시내를 가르는 진즈 강을 건널 때면 언제나 자연스레 나의 자전거 페달을 멈추게 만들었던 다테야마의 멋진 설경과 청량감. 그래서 기꺼이 그 풍경에 시간을 내어주고 싶은 곳. 도야마는 지금도 나에게 그런 곳입니다.

3년간의 JET프로그램을 내 인생에서 정의하자면, 또 다른 세계를 만나고, 그 안에서 새로운 '나'를 발견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도야마는 3,000m가 넘는 다테야마 연봉이 도시를 감싸고, 바다를 가까이 접하고 있는 풍요로운 자연이 도시의 여유로움을 자아내지만, 나는 그 속에서 어딜 가나 '한국'을 대표하는 아이콘으로 부단히도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어울리며 때론 부딪치고, 때론 함께 웃었습니다.

첫해 봄, 한국의 매스컴을 초청하여 도야마의 매력을 어필했던 관광과 수행통역을 시작으로, 다양한 팸투어와 현지사 예방, 리셉션 통번역을 맡으며, 한국에서 손님이 올 때면 제발 날씨가 좋아 하늘 뒤에 감춰진 푸른 다테야마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길 나의 동료들과 진심으로 바랬고, 현 내 각종 국제교류의 중심에서 한국과의 연결고리 역할을 수행하며 한국에서는 느껴보지 못했던 책임감과 자부심도 느꼈습니다.



특히, 시찰통역은 한국과 비슷하면서도 다른 일본사회의 다양한 면을 볼 수 있는 기회이기도 했습니다. 좁고 구불구불한 산길을 차로 한시간 가까이 올라야 갈 수 있는 별이 가까운 마을 도가무라(利賀村)에 옛 사람들의 삶이 묻어나는 합장양식의 전통가옥을 이용하여 예술촌을 형성하고, 무대연출가 스즈키 다다시(鈴木忠志)의 색다른 연출을 더해 세계 사람들이 찾는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방식은, 무더운 여름에 정장을 입고 한국정부 시찰단을 수행하며 반나절 동안 3편이나 되는 연극을 내리 감상했던 추억과 함께 상당히 흥미롭게 기억됩니다.



〈 마지막 학교방문을 함께했던 난토다이라 고등학교 학생들 〉

JET프로그램의 좋은 점은 무엇보다도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의 생활 속에 들어가 그들과 한국을 연결하고, '한국'을 테마로 많은 사람들과 즐거움을 공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며칠 동안 고민하며 만든 자료를 가지고 현내 여러 단체와 학교를 방문하여 한국문화 이해강좌를 진행했던 것과 삼삼오오 모여들어, 가르쳐준 한국어로 반갑게 인사해주던 학생들, 매주 수요일마다 궂은 날씨에도 도야마 국제센터 한국어강좌의 자리를 메워주던 나의 수강생들과 나눴던 즐거움은 소소하지만 3년간의 어느 기억보다 소중한 것입니다. 소심한 구석이 있는 나에게 많은 사람들 앞에 서는 일은 언제나 남모름 노력들을 필요로 했지만, 어느새 그 동네의

베테랑이 되어 사람들과의 만남을 즐기고, 그 안에서 많은 이들에게 받았던 응원과 에너지는 나에 대한 새로운 면을 발견하게 했고, 돌이켜보면 자신에게 맞는 것이 무엇인지 스스로 확신을 갖게 해준 기회이기도 했습니다.



〈 도야마 현내 JET들과 함께한 채리티 쇼 뮤지컬 〉

또한, 도야마에서는 매년 세계 다양한 국적으로 구성된 JET청년들이 중심이 되어 뮤지컬 공연을 펼치는 채리티 쇼와 인터내셔널 카페, 키즈코너 등을 통해 각국의 문화를 소개하는 JET세계축제를 개최하는데, 오타쿠가 따라올 법한 아키하바라 메이드와 ALT들을 학생으로 영어선생님 역할을 맡아, 1인 2역을 연기했던 채리티 쇼는 지금은 각 국에 흩어져 있지만 JET로 연결된 외국인 친구들과 가끔 꺼내어보는 좋은 추억거리입니다. '축제의 성공적 개최' 라는 공동목표 아래, 소품 준비부터 행사진행까지 서로 다른나라의 교류원들과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조율해가며 다양한 문화권의 사고방식을 접할 수 있었고, 함께 모이면 절로 다양한 관점에서의 해석이 나오던 현내 CIR정례회는 지금도 TV프로그램 비정상회담을 볼 때면 그 속에 들어가 있던 우리의 장면을 떠올리게 합니다.

3. 새로운 시작을 이어준 JET프로그램

‘일본의 이별의 계절 3월, 한국의 시작의 계절 3월’, 귀국하던 해의 봄은 정들었던 풍경, 그리고 사람들과의 헤어짐으로 일본에서의 여운이 깊게 남아있었습니다. 진한 아쉬움과 함께 또 다른 시작의 설렘이 교차하던 그 때, 막연하게나마 한국에서도 소중했던 JET의 경험을 살려 일을 하고 싶다는 바람을 품고 있었습니다. 늘 그렇듯 현실은 나의 바람과 쉽게 타협해 주지 않았지만, 기업에서 새로운 경험을 쌓고 도전을 거듭하며, 꿈처럼 국제교류 업무를 이어갈 수 있는 기회가 다시 찾아 왔고, 현재는 한국의 자치단체 산하 국제교류기관에서 일본과의 교류를 6년째 담당하고 있습니다.

JET프로그램이라는 경험의 밑바탕 위에 또 다른 위치에서 국제교류라는 그림을 그려 나가는 일은 생각보다 흥미롭습니다. 도야마 시 한국어학습자와 일본어를 공부하는 시민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교류가 실현되어, 나의 인연으로 하여금 다른 인연들이 생겨나고, 얼마 전 봤던 애니메이션의 빨간 끈처럼 이어지는 모습을 보면 신기하면서도 뿌듯함이 느껴집니다. 또한, 항상 새로운 아이디어와 고군분투해야 하는 나에게 국제교류원으로서의 경험은 지금의 일을 즐길 수 있게 만드는 든든한 지원군이자 원동력입니다.

4. JET프로그램 참가를 목표로 하는 후배들에게

JET프로그램에 참가하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아마 개인의 목표, 해외생활에 대한 기대, 취업 등 각기 다양한 목적과 기대감을 갖고 관심을 기울이고 있을 것입니다. JET프로그램은 분명 좋은 근무환경 아래, 어쩌면 한국에서 보다는 업무나 생활면에서 여유로운 일상을 즐길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JET프로그램을 단순히 취업선상에서의 대안으로 접근하기 보다는, 한국을 알리고 내가 있는 지역과 한국을 잇는다는 사명감을 바탕으로 사람들과 교류를 통해 진심을 나눌 줄 알고, 그 속에서 자신의 틀을 깨고 나와 다음 스텝에 도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JET경험의 의미를 찾는 건 결국 자신의 몫이긴 하지만, 반드시 그 이상의 값진 의미를 안겨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풍부한 인생은 만남의 수에 비례한다.’ 얼마 전 다녀온 일본 출장에서 이 환영 인사말을 통역하며, JET를 통해 만났던 수많은 인연들을 떠올렸습니다. 나의 삶의 카테고리를 넓혀 준 도야마에서 같은 시간을 공유했던 사람들과 앞으로도 JET를 통해 이어질 인연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JET프로그램에 도전하고자 하는 후배들에게도 이 글로 작게나마 용기를 북돋아주고 싶습니다.

‘KJET 20기 유옥영 입니다!’ 이 인사말을 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했던지요. JET프로그램을 준비하는 저를 보는 주변 사람들의 눈빛이 응원에서 측은함으로 바뀔 무렵, 기다리고 기다리던 합격 연락을 받은 2012년 2월 29일을 지금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1. 막연한 동경에서 이루고 싶은 소원으로

뒤늦게 시작한 일본어 공부를 하며 품은 작은 꿈은 일본에서 한번 일 하며 살아보는 것이었습니다. 일반 기업에 취업하는 것으로도 이룰 수 있는 일이지는 했지만, 제가 원했던 것은 좀 더 일본사람들의 삶에 녹아들어 더불어 살아가는 그 무엇이었던 것 같습니다. 바로 그 즈음에 알게 된 JET프로그램의 존재는 막연했던 저의 바람을 구체화하는 데에 목표가 되어주었습니다. 매년 열 명 남짓에서 많아야 스무 명을 넘지 않는 소수의 선발 인원, 높은 경쟁률, 일본어는 기본이고 준비해야 할 것이 너무 많아 보였던 JET프로그램 선발시험을 저는 총 네 번 도전했고, 이제 이번이 마지막 도전이야 라고 다짐했던 2012년에야 드디어 한국인 JET프로그램 참가자로서 명단에 이름을 올릴 수 있었습니다.



〈2012년 4월 14일, 국제교류원으로서 다이센 시에 도착한 첫 순간〉
(제 이름을 새긴 환영 보드가 오래오래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2. JET프로그램 참가자로서의 하루하루

제가 파견된 곳은 서울보다 넓지만 인구는 채 9만 명을 채우지 못했던 아키타 현의 다이센 시라는 곳입니다. 당시 드라마 촬영지로 한국에도 잠시 이름을 알린 아키타 현이지만 일본사람들도 한번 가본 적도, 가볼 일도 없다고 말하는 외지고 조용한 동네입니다. 하지만 시끄러운 도시에서 나고 자란 저에게는 그 고요함이 참 인상 깊고 마음에 들었습니다. 이 고요함은 나중에 외로움의 씨앗이 되기도했지만요.

CIR 아키타현다이센시근무2012~2014년

국제교류원인 저의 업무는 기본적으로 다이센 시가 교류를 맺고 있는 한국의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와의 연락 및 관련 행사 통역과 자료의 번역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중요한 업무는 이문화(異文化) 이해를 위한 다양한 분야의 문화강좌입니다.

학교나 단체의 의뢰에 맞춰 수학여행을 위한 한국문화 이해강좌나 한국어 교실, 지역주민과 아이들을 위한 다양한 주제의 문화강좌를 진행했고 그 중에서도 제가 제일 즐겁게 진행했던 것은 다름 아닌 요리교실이었죠. 저보다 손놀림이 백배는 빠른 주부님들과의 손발 착착 맞는 프로급 요리교실부터 어린친구들과 소꿉놀이마냥 즐거웠던 화전 부치기도 기억에 남고, 특히 싱글 남성들만을 대상으로 한 요리교실에서는 손수 만들어 본 매콤한 닭갈비와 오이소박이가 술안주로도 딱이라며 즐거워하셨던 영감님들의 모습이 지금 이 글을 쓰면서도 몽클하게 다시 떠오릅니다.



〈 오타히가시 초등학교에서 한국소개 수업 중 〉



〈 요리교실에서 만든 닭갈비 〉

3. 인연을 소중하게

JET프로그램 참가자로서의 업무 외에도 제가 힘을 쏟은 것은 다른 JET참가자들과의 교류였습니다. 생각보다 시간과 비용, 체력이 필요했기에 가보고 싶었던 곳을 다 가 보지는 못했지만, 이웃지역인 아오모리와 히로사키를 비롯하여 센다이, 니가타, 홋카이도의 니세코 등 언제 이곳에 다시 와볼까 싶은 곳들을 한 곳이라도 더 가보려 노력했고, 각 지역의 JET친구들과도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임기를 마친 지금도 출장길이나 여행길에 최대한 JET친구들을 만나려고 일정을 짜보곤 합니다.

지난 12월에는 도쿄 한국문화원의 한국인 JET참가자를 대상으로 하는 연수에 JET선배로서 참가하였고, 발걸음을 옮긴 김에 마츠야마와 고베, 오사카를 둘러 선배와 동기, 후배를 만나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새로운 친구들과의 만남을 소중히 한 덕일까요, 지금은 JET프로그램으로 알게 된 지인의 소개로 가고시마현의 한 식품회사에 소속되어 한국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회사 담당자는 자기 동네에도 한국인 JET가 있다며 저를 친근하게 반겨주었고, 처음 맡는 업무였지만 따뜻한 배려 속에서 어렵지 않게 잘 적응할 수 있었습니다.

JET로 파견되는 친구들의 가장 큰 걱정 중 하나인 경력의 단절, JET 이후의 삶에 대한 고민을 JET에서 알게 된 인연이 해결 해주었으니, 비록 선발되기 까지 마음고생도 컸지만 JET프로그램을 선택한 제 안목을 새삼 칭찬 하고 싶어집니다.



4. 왜 나는 JET가 되어야 하는가 (JET프로그램 참가를 희망하는 여러분께)

‘우리는 착한사람만 뽑아요’ 이 말은 제가 한참 JET프로그램을 준비하던 당시 참석했던 JET설명회에서 ‘JET를 위해 어떤 준비를 하면 될까요?’라는 질문에 대한 한 JET경험자의 답이었습니다. 일리가 있는 말처럼 들리면서도 뭘 어떻게 준비하라는 것인지, 오히려 수험생들을 혼란에 빠뜨리는 문구였죠. 지금도 오랜만에 이 문구를 떠올리며 그 선배가 말하고자 했던 '착한사람'이란 무엇인가를 고민해 봅니다. 말은 바 책임을 다하고 궂은 일도 솔선하여 묵묵히 해내는 사람같은 교과서적인 모범답안도 있겠지만, 저는 '착한사람'의 의미를 이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나 자신을 아끼고 사랑하는만큼 다른 사람도 똑같이 대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요.

참가자들을 위한 배려와 케어 프로그램이 많이 준비되어 있는 JET프로그램이지만 업무내용의 다양함과 배치되는 지역의 특성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스트레스는 일반 사기업 근무자의 그것과 비교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저도 현역시절 모든 업무를 다 완벽하게, 마음에 차도록 해내지는 못했었고 그럴 때는 이런 상황에서 내가 그때 선배가 말했던 것처럼 착한사람이었다면 더 좋았을까라는 생각을 종종 하기도 했습니다. 사람이 하루아침에 착한사람으로 변신 할 수는 없는 노릇이기에 보통사람이었던 저는 힘들었던 그 일들을 제 나름대로의 방법으로 해결해 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좋은 결과도, 또 나쁜 결과도 있었지만 과연 착한사람이라면 이렇게 했을까 저렇게 했을까 어떻게 마무리가 되었을까를 떠올려 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을 다스리는 데에는 큰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JET 면접 때 마다 빠지지 않았던 질문, ‘당신은 왜 일본에서 국제 교류라는 일을 하려고 하는가’에 대해 JET를 목표로 하는 분들이라면 그 답을 많이 고민해 보시고 준비에 임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본회사에서 한국과의 연결창구라는 또 다른 이름의 교류를 하고 있는 지금의 저에게 JET프로그램의 국제교류원이 되기까지 고민했던 시간들이 큰 자산이 되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해답은? 물론 교류를 꿈 꾸는 당신 안에 있을 것입니다.



〈JETAA 임원으로서 참가한 JET설명회〉

1. 니세코가 어디예요?

JET프로그램 합격발표를 보는 순간, 기쁨과 동시에 당황스러움을 느꼈습니다. '北海道ニセコ町' 제가 파견될 배치처의 이름이었습니다. 일본은 도쿄와 오사카 여행 밖에 가본 적이 없었던 저에게 홋카이도는 낯선 곳이었으며, 가타카나로 적힌 '니세코'라는 곳은 더욱 생소한 곳이었습니다. 인터넷을 뒤져보았지만 정보가 적었을 뿐만 아니라, 지도에는 도로만 나올 뿐 건물이 몇 채 보이지 않아 더욱 걱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곳에 가기를 좋아하는 성격과 저의 담당자가 되어줄 직원의 친절한 메일에 의지하여 니세코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직접 가서 본 니세코는 인터넷에서 보는 곳과 매우 다른 곳이었습니다.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스키 리조트에는 전 세계에서 온 관광객들로 넘쳐나고, 마을에는 니세코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로 가득하였습니다. 또한, 수제 베이글을 파는 가게부터 역 안 앤티크 풍의 카페집까지, 인터넷 지도에는 다 담지 못하는 멋진 가게들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인구 4,800명의 작은 마을이었지만, 그 사람들 중 대다수는 니세코가 좋아서 니세코로 이주를 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따라서 니세코의 새로운 일원이 된 저를 더욱 자기 이웃처럼, 친구처럼 반겨주었습니다.

니세코 사람들의 정을 느낀 가장 큰 활동은 바로 '커뮤니티 라디오' 활동입니다. 니세코에는 방재정책의 일환으로 지역 커뮤니티 라디오가 있습니다. 실제 송신 범위는 니세코 정에 한정되어 있지만, 인터넷을 활용하여 니세코의 소식을 전 세계에 전하는 활동을 하는 방송입니다. 저는 이 라디오 방송국에서 한 달에 한 번 업무로서 한 시간의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습니다. 스스로 내용을 기획하고, 원하는 곡을 틀면서 라디오 일에 재미를 느꼈고, 저를 만나면 '라디오 들었어요!'라고 이야기해주는 지역 주민들의 응원에 힘입어 더욱 즐겁게 일을 하였습니다.

또한, 취미생활의 일환으로 '라디오 연극단'의 단원으로 활동하면서 지역 주민들과의 교류도 늘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저 스스로가 니세코의 일원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대도시를 좋아하여 한 달에 한 번씩 삿포로나 도쿄로 여행을 다녀오곤 하였지만, 쉽게 경험할 수 없는 작은 마을에서 추억을 쌓으면서 인구 수나 지도 상으로는 알 수 없는 매력이 마을 곳곳에 숨어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 지역 이벤트 〉



〈 커뮤니티 라디오 활동 〉

2. 한국에는 일본을, 일본에는 한국을

니세코에서 일하는 동안 저의 업무는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알리기 활동이었습니다. 국제교류활동에 관심이 많아 JET프로그램에 지원했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한국어로 동화책을 읽어주고,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국어 강좌를 하는 것은 제가 꼭 해보고 싶은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처음 배치된 곳은 바로 관광과였습니다. 이 곳에서 저는 저의 두 가지 업무 중 또 다른 하나인 니세코 관광홍보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난 한국을 알리러 일본에 온 것인데, 내가 왜 한국 여행사들에 니세코를 알리는 자료를 보내고, 연락을 해야 하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관광과의 업무를 하면서 지역에 대한 이해가 더욱 높아지고, 숨겨진 명소에 대해서도 더 잘 알게 되어



휴일이 즐거워졌습니다. 그리고 제가 니세코에 오기 전에는 많지 않았던 니세코에 대한 인터넷의 정보량이 점차 늘어나는 것을 보면서 일의 보람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니세코에서 개최된 '홋카이도 스노우 엑스포'의 진행요원으로 파견되었던 일입니다. 평소에 하던 일본어-한국어 통역에 더하여 영어-일본어-한국어 3개 국어의 통역을 해야 하여 힘들기도 했지만, 전 세계에서 초대된 여행사 관계자들과 함께 니세코와 주변 지역의 명소를 함께 다니면서 홋카이도의 매력을 직접 알리고, 어떤 점을 어필하면 좋을지 소통할 수 있어 국제교류원으로서의 보람과 니세코 주민으로서의 자부심을 동시에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3. 내가 만들어가는 국제교류

관광홍보 업무와 병행한 국제교류 업무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바로 '동화책 월드'라는 이벤트를 기획한 일입니다. 국제교류원으로 저의 일상업무 중 하나는 지역 도서관에서 아이들에게 한국 동화책을 한국어와 일본어로 읽어주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뿐만 아니라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 세계의 동화책을 소개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 저와 함께 일하던 총 3명의 국제교류원과 동화작가이신 지역 주민, 그리고 국제교류에 관심이 있는 여러 주민들과 함께 '동화책 월드'라는 이벤트를 기획했습니다.

주민센터의 홀에 일본, 한국, 영국, 미국, 독일, 오스트리아, 중국, 캐나다 등 전 세계의 동화책들을 전시하고 2개국어로 동화책 읽어주기, 동화책과 관련한 공작과 게임 등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하였습니다. 처음 시도하는 행사였기에 부담이 많이 되었지만, 지역 주민들과 동료들의 도움을 받아 약 150명 가량이 방문한 성대한 이벤트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정기적으로 진행하는 한국문화강좌 역시 스스로 주제를 생각하고 내용을 기획하며, 한국에 대한 일본인들의 편견을 깨기 위하여 다양한 소재를 활용하였습니다. 이렇게 니세코의 업무는 대부분 제가 직접 기획하고, 추진하는 일이었습니다. 능동적으로 일하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러한 업무들이 가능한 소규모 지자체에서 일하게 되어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JET참가자들은 파견되는 지자체의 규모나 시스템에 따라서 생활 면과 업무 면에서 개개인이 직면하는 상황은 모두 달라집니다. 그러나 자신이 배치되는 곳에서 만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만들 수 있는 추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니세코에 있어서 힘든 점도 있었지만, 니세코에 있었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JET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이 각각 자신만의 커리어와 추억을 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 학교방문 〉



〈 한국문화강좌 〉



〈 주삿포로영사관 협력행사 〉

CIR시마네현마쓰에시근무 2012~2015년

1. 너무나도 미숙했던 나

2011년 일본에서 대학원을 졸업할 때쯤, 졸업논문 작성에 쫓기는 정신 없는 상황 속에서도 마음 한켠에는 불안감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이미 오래 전부터 그것이 무엇인지는 자신이 제일 잘 알고 있었으나 항상 미루고 또 미루어 두던 생각. '졸업하면 무엇을 할까' 였습니다.

일찍이 이과의 '이(理)'나 공과의 '공(工)'이라는 글자와는 담을 쌓고 지낸 전형적인 일문학 전공자(문학도 아는 게 없지만)였고 대학원에서도 배운 내용도 취업에는 신통치 않았던지라 그런 마음은 더 컸는지도 모릅니다. 사실 JET프로그램에 대한 도전은 스스로의 선택은 아니었습니다. 멀리 있는 친구의 권유가 JET에 도전하게 된 계기였는데, 공부나 마음가짐 둘 다 제대로 준비가 된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 아름다운 노을이 지는 호수(마쓰에 시) 〉

2. 아름다운 노을이 지는 곳에서 만난 아이들

제가 있던 마쓰에 시는 호수로 지는 노을이 아름다운 곳입니다. 국제교류원의 하루가 끝나고 호수에 떨어지는 해를 바라보며 맥주 한 잔을 곁들이며 사진을 찍거나 노을을 보러 온 사람들을 구경할 수 있는 소소한 재미가 있는 곳입니다. 마쓰에 시 국제교류원 업무 중 가장 비율이 높은 일은 학교와 공민관(한국의 주민문화센터)을 찾아가는 일 입니다. 이렇게 일본에서 일반 주민들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외국인이 모국의 문화를 소개할 수 있는 점이 JET프로그램의 매력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특히 학생들은 제가 소개한 한국에 대해서 정말이지 상상도 못한 반응을 보여주곤 합니다.

한국의 식문화를 소개하려고 가져간 스테인리스 그릇과 금속 수저를 가지고 악기 다루듯 연주하는 예술가, 나이먹기 놀이를 하려고 준비한 삼각콘을 머리에 쓰고 뛰어다니는 악동, 생김새는 자기들과 똑같건만 외국인이라는 말에 쭈뼛쭈뼛 대며 말도 못 거는 수줍음 많은 부끄럼쟁이, 교류원도 몰랐던 한국에 대한 지식을 공부해와서 놀라게 만드는 척척박사 등 수많은 아이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또 한국에서 하는 '무뽀기'라는 아이들 놀이를 가르쳐 주니, '아! 이거 이거 일본에도 있어!'라며 다른 이름으로 똑같은 놀이를 하는 아이들을 보고 놀라며 한층 한국과 일본의 가까움을 느낀 적도 많았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어서 아이들과 함께 맛있는 급식까지 먹고 나서 '이제 헤어질 시간~'이라고 하면 붙잡는 아이들과 차를 타고 돌아가는 길까지 따라와서 손 흔들며 배웅하는 아이들 때문에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아이들이 언젠가 또래의 한국 아이들과 만나고 저와의 추억으로 이야기의 물꼬를 틀 수 있다면 무척 기쁠 것입니다.



〈 학교방문에서 만난 아이들 〉

3. 주위를 둘러봅시다

소속되는 지자체에 따라서 차이는 있겠지만 대부분의 국제교류원은 여가시간이 넉넉한 편입니다. 자연히 취미생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는데, 제가 눈을 돌린 분야는 자전거와 캠핑이었습니다. 바다가 아름다운 시마네 현의 해안선을 따라 몇 날 며칠을 자전거로 달리고, 해수욕장을 찾아서 캠핑을 하는 취미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국제교류원의 임기가 끝난 후에는 자전거 전국일주에 도전하자! 라는 생각에 4개월에 걸쳐서 홋카이도부터 오키나와까지 1만 킬로미터의 여행을 했습니다. 아마 이 취미는 제 일생의 취미생활이자 도전적인 경험이 될 것 같습니다.



〈 자전거 일본 전국일주 〉

4. 손님으로만 머물지 마세요

JET프로그램에 도전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아마도 대부분 여행이든 유학이든 일본에 머무른 경험이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에서 선발되는 국제교류원의 부임지 대부분은 중소도시, 혹은 시골입니다. 오늘날 대도시만 보자면 한국과 일본이나 별반 차이가 없는데 그래서 저는 일본의 진짜 모습은 이런 작고, 조금 불편한 곳들에서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의 특색과 사람들의 생활상이 만들어 내는 문화가 아직 많이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국제교류원이라는 직함은 외부인에게 열지 않는 빗장을 허무는데도 꽤나 큰 도움이 되는데, 이런 점은 일본에서 지나가는 '손님'이었던 여러분을 그 지역의 일원으로 받아들여지고, 일본인들이 소중하게 여기는 '기즈나(絆)'라는 게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는 좋은 기회 일 것 입니다.

좋은 삶든 여러분은 '동네 아이돌'이 될 테니까요!

CIR 히로시마 현 근무 2002~2004년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2002년부터 2004년까지 히로시마 현청 국제교류실에서 근무하였으며, 현재는 경기도 중등 일본어 교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JET프로그램 참가 경험이 현재의 직업 선택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 인생에서 중요한 한 페이지를 장식하는 JET와의 만남부터 그 이후까지를 돌아보고자 하는데 함께 하시겠어요?

1. JET프로그램에 참가하기까지의 자신을 돌아보면서

저는 어릴적 부모님을 따라 일본에서 생활했던 경험이 밑바탕이 되었고, 외국어에 대한 관심이 많아 일어일문학과에 진학했습니다. 대학교 1학년 강의시간 중 교수님께서 JET프로그램에 관한 정보를 주신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건성으로 흘려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4학년 때 후쿠오카에 있는 큐슈대학에서 일본어·일본문화 연수생 생활을 하면서 JET프로그램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게 되었고, 이것이야말로 내가 찾고 있던 일이라는 강한 이끌림이 있었기에 귀국 후에는 JET프로그램 시험 준비에 몰두하였습니다. 그리고 2002년 4월부터 히로시마 현청에서 대망의 국제교류원 생활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2. JET프로그램에 참가하면서

모든 사회 초년생들에게 그러하 듯이 첫 직장은 설렘과 두려움으로 가득찬 곳입니다. 내 인생의 첫 직장이 외국의 공무원들과 함께하는 곳이라 생각하니 더더욱 그랬습니다. 저의 근무지 히로시마는 인류 역사상 최초의 피폭지로 유명한 곳입니다. 국제교류원으로 부임한 지 얼마 안 되었을 무렵, 같은 건물에 있는 피폭대책실에서 업무지원 요청이 왔습니다. 한국에서 피폭자로 추정되는 가족이 피폭대책실을 방문할 예정이니 통역을 부탁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으로 뭔가 굼직한 업무를 맡게 되었다는 긴장감과 기대감에 부풀어 약속 장소로 향했습니다. 먼저 가서 기다리고 있으니 거동이 불편하신 백발의 노모를 부축한 60대 어르신들이 천천히 들어오셨습니다. 그분들은 50여 년 전에 겪었던 일들을 하나씩 증언하셨는데, 당시의 처참했던 상황을 묘사하시는 것을 통역하면서 울컥하는 마음을 억누르기 힘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히로시마 현은 자국민 뿐만 아니라 재외 국민에게도 당시 상황이 소명이 되면 피폭자로 지정해 주고 병원진료비를 지원해 주는 정책을 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역사 앞에 책임 있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근무기간 동안 그 가족분들 이외에도 몇 차례 유사한 사례를 접할 수 있었습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록되어 있는 히로시마 평화기념공원은 피폭 당시의 처참했던 상황을 생생하게 재현해 놓은 곳으로, 연중 전 세계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곳입니다. 나는 이 역사적인 장소를 매일 자전거를 타고 가로질러 출퇴근을 했었습니다. 내가 따사로운 햇살을 받으며 평화롭게 거니는 이 길이 50여 년 전에는 생명체가 다시 살 수 있을지 의문이 일 정도로 폐허였던 곳이지만, 끈질긴 생명력과 사람들의 노력으로 재건에 성공하여 지금은 원폭 돔만이 그 당시의 참상을 조용히 알리고 있습니다.

또 다른 국제교류원의 대표적인 업무 중에는 지역 학교방문이 있습니다. 나의 현재 직업을 선택하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업무입니다. 주로 초등학교로 간 일이 많았는데, 한국어와 한국의 전통 문화, 한국 사회 전반에 걸쳐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추어 한국을 소개 하는 일이었습니다. 현장에서 아이들과 소통하면서 모국에 대한 애국심과 나의 적성을 발견하는 좋은 계기가 된 듯합니다. 특히 어느 중학교에서 한글 강좌를 하면서, 우리말과 글의 과학성과 우수성을 새삼 깨닫고 우리문화에 대한 자부심을 느끼기도 하였습니다.

국제교류원 생활을 하면서 내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 보다 도움을 받는 일이 더 많다고 느낄 때가 종종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JET프로그램은 전 세계의 젊은 인재들을 초청하여 일본의 지역사회를 국제화시킨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오히려 우리 교류원들이 국제적인 안목과 식견을 키울 수 있는 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각자의 부임지에 도착하기 전에 도쿄에서 이루어지는



오리엔테이션, 임기 중간에 이루어지는 각종 연수프로그램, 그중 가장 감탄했던 것은 교류원들을 위한 심리상담 연수였습니다. 각기 다른 환경에서 근무하면서 개개인 교류원들이 느끼는 어려움을 강의 및 집단상담을 통해 해소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연수입니다. JET프로그램을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해 세심한 부분까지 신경을 쓰는, 한마디로 A/S까지 확실하게 보장해준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연수에 참여하면서 두 가지 아쉬웠던 점이 있었는데, 첫 번째로 JET프로그램은 대다수가 영어권 참가자이다 보니 상담연수 같은 경우는 일본어와 영어로 이루어집니다. 일본에서 영어 때문에 주눅이 든 것은 처음이었고 영어회화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꼈던 순간이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영어권에서 온 교류원들은 많은 사람 앞에서 자신의 생각을 당당하게 말하는 모습이 매우 자연스러웠습니다. 제가 한 이야기가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들릴지를 걱정하고 망설이다가, 하고 싶은 말을 못하고 마는 나의 소극적인 모습과 대조되어 많이 부럽게 느껴졌습니다. 여러분은 미리 대비하여 저와 같은 아쉬움은 느끼지 않기를 바랍니다.

3. JET프로그램이 현재의 자신과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는가.

JET프로그램은 나의 가능성을 마음껏 시험해 볼 수 있는 직업체험 프로그램과도 같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현청 내외에서 의뢰가 들어오는 각종 번역 업무, 한국에서 정기적으로 방문하는 공무원 연수단의 인솔·통역, 초·중·고등학교 방문 강의, 현청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어 강좌, 그 밖에 각종 국제교류 이벤트 참여 등 내가 일본어를 활용해 할 수 있는 거의 모든 영역의 업무를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프로그램이라고 감히 말하고 싶습니다. 위에 열거한 업무를 통해 나의 적성을 파악하였고, 귀국 후 임용고사에 도전하여 내 꿈을 이루었으니, 국제교류원 경력은 내 남은 인생을 좌우하게 된 내 인생의 큰 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4. JET프로그램 참가를 목표로 하는 후배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아직 JET프로그램에 도전할지 말지 고민이라면, 끌리는 길을 서슴없이 걸어가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어디서 봤는데 '갈까 말까 고민되면 가라'고 합니다. 제 경험 상, 모든 경험은 다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것이었기에 후회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선택에 대한 책임만이 남는 것이니까요. 그리고 도전하기로 결정했다면 철저히 준비하라고 조언하고 싶습니다. 이는 제가 일본으로 출국 전 JET선배님으로부터 들었던 조언이기도 합니다. 사람은 아는 만큼 보이고, 보고 들은 깊이만큼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다시 국제교류원으로 기회가 주어진다면 훨씬 더 잘할 수 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저는 건강상의 이유로 2년 근무 후 귀국했던 상황이었기에 아직도 그때를 생각하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홀로 외국생활 하면서 건강관리 잘 해서 저와 같이 아쉬움 가득 안고 귀국하는 사람은 없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함께 직장생활 하면서 마음 맞는 사람들과 시간 날 때마다 여행을 많이 다니시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같은 부서 직원들과 함께 떠났던 홋카이도 여행이 너무나 아름다운 기억으로 남아 있기에, 더 많이 다니지 못했던 시간들이 아쉽기만 합니다. 그러고 보니 내가 교류원이었던 시간이 벌써 15년 전입니다. 지금 JET프로그램 시험에 도전하는 후배님들은 그 무렵보다 더 치열하게 경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힘들게 얻게 될 자리인 만큼 분명 값진 경험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다시 돌아오지 않을 시간을 되돌아보며 행복해 할 미래의 JET참가자들의 건투를 빕니다.



〈 일본문화 체험교실 〉



〈 학교방문 〉



〈 한국문화 연수 〉

CIR 이시카와 현 근무 2006~2011년

1. 출발하기 전에

합격 발표를 들었을 때 옆에 있던 친구를 껴안으며 기뻐했던 기억이 지금도 선명합니다. 그와 동시에 내가 너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것이 아닐까, 혹은 가서 잘 할 수 있을까라는 걱정이 배치처에 도착할 때까지 계속되었습니다. 도착했을 때 제 걱정을 잠재울 수 있도록 따뜻하게 맞이해주신 상사, 동료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2. 이시카와현에 대하여

제가 5년간 근무했던 이시카와 현은 일본의 호쿠리쿠 지방에 위치한 인구 약 115만명의 현으로, 북서쪽으로는 긴 해안선을 갖고 있으며 남동쪽에는 일본 삼대 명산 중 하나인 하쿠산이 솟아있는 아름다운 자연을 품은 지역입니다. 북쪽 노토 지방은 기리코 마쓰리로 대표되는 여름 축제가 뜨거운 어업 중심의 지역이며, 남쪽 가가 지방은 평야가 펼쳐져있어 고시히카리와 같은 벼농사와 채소 농업이 발달된 지역입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위치한 현청 소재지인 가나자와 시는 에도시대에 마에다 가문이 지배하던 가가 번의 중심이 되는 곳으로 지금도 중세시대의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곳입니다. 2015년 3월에는 호쿠리쿠 신칸센이 개통되어 많은 곳에서 관광객이 찾아와 더욱 더 활기를 느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부쩍 미디어에도 많이 등장하게 되어 다른 지역에서 살고 있는 저도 반갑게 보고 있습니다.

3. 다양한 업무

이시카와 현 국제교류원으로서의 업무는 주로 통역과 번역, 거주 외국인을 위한 정보 제공, 국제교류 이벤트 기획 및 참가, 한국어 교실, 각 학교 및 평생학습원으로서의 강좌 등이었습니다. 출근하자마자 저를 기다리고 있었던 업무는 현내 지자체의 관광 팸플릿을 번역하는 일이었습니다. 오래 일을 하다보면 당연히 알고 있을 지명, 특산물 이름을 하나 하나 찾아보면서 오랫동안 시간을 들여 번역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몇 년이 지난 후 그때 제가 번역했던 것을 보고 부끄러워했던 기억도 납니다. 모든 것이 서툴기만 했던 때였지요. 처음에는 긴장도 되고 어려워했지만 나중에도 아주 좋아했던 업무는 통역입니다. 이시카와 현은 전라북도와 우호 교류를 맺고 있어 청소년 교류를 비롯하여 환경, 농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를 위한 통역 업무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농업 교류 통역이 인상에 깊이 남아있습니다.

브로콜리 밭이나 토마토 비닐하우스 등 처음으로 가보는 곳도 많았으며 네모난 수박을 만들기 위한 연구 등 흥미로운 주제가 많았습니다. 전문용어도 많아서 어렵긴 했지만 그만큼 많은 분들이 통역의 어려움을 이해해주시고 많이 도와주셨으며, 보다 많은 대화도 나눌 수 있어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통역이라는 업무가 단순히 언어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일이라는 것, 그 느낌이 통역 업무를 좋아하게 만듭니다.



〈 농업 교류 통역 〉



〈 네모난 수박 〉



〈 가나자와 시 〉



4. 이시카와현에서의 생활

제가 거주했던 가나자와 시는 집에서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에 가나자와 성을 비롯한 무사저택터, 차야가이가 있어 일상 생활 속에서 일본의 전통을 느낄 수 있는 아름다운 도시입니다. 특별한 일이 없어도 중세의 거리를 조깅하고 산책할 수 있었던 일상이 너무 좋았으며 전통이 남아있는 도시인 만큼 기모노나 꽃꽂이와 같은 일본의 전통문화를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많았습니다.



〈 전통문화 체험 〉

5. JET프로그램에 참가하고 나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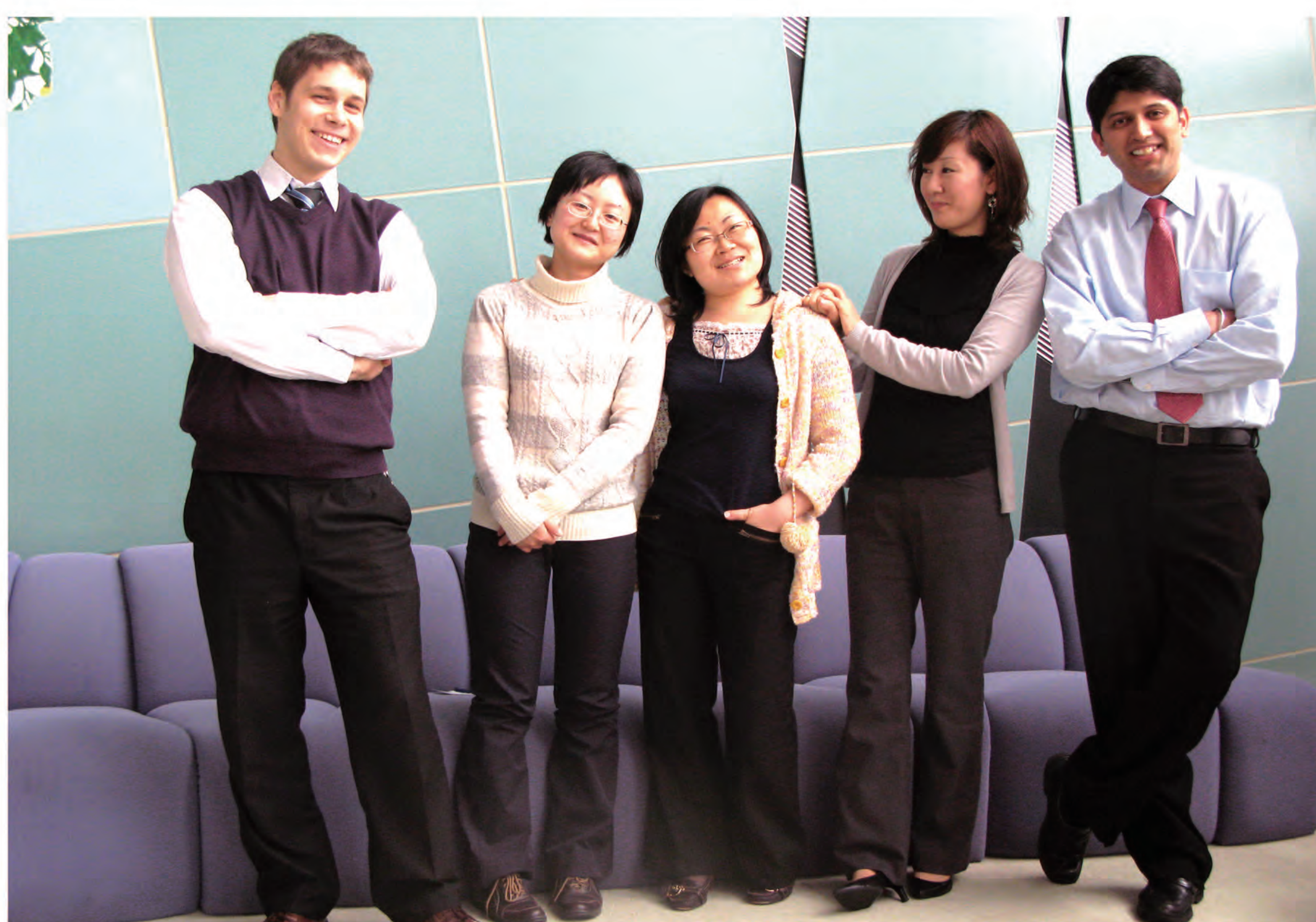
한국에서 일본어라는 외국어를 전공하긴 했지만 몇몇 일본인 친구를 제외하고는 외국인 지인이 많았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제가 국제교류원으로 일본에서 일하면서 가장 크게 얻은 것이 있다면 외국인 노동자라는 사회적 소수자가 되는 경험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과거의 제가 사회적 소수자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졌으며 어떻게 대했는지 크게 반성하기도 하였습니다. 좀처럼 스스로가 그 입장에 처하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 것이 많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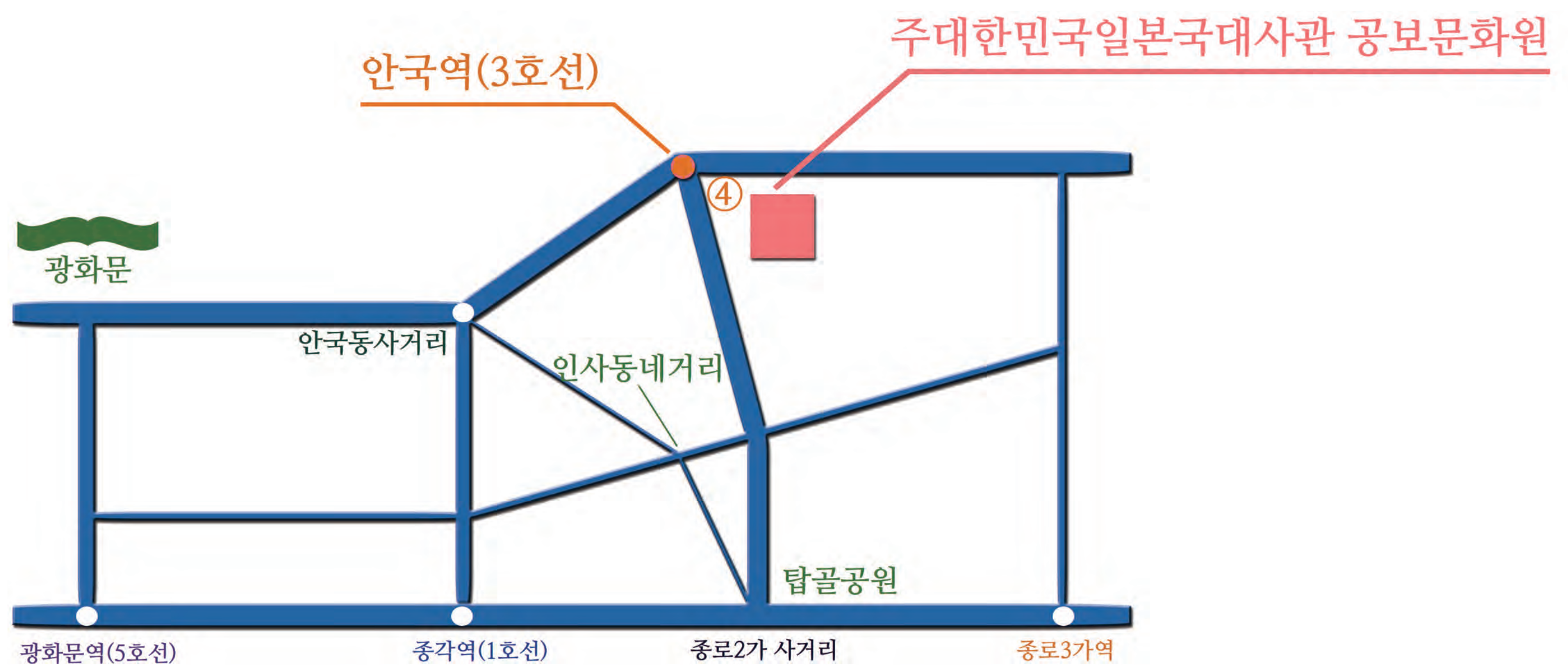
사실 국제교류원은 외국인 노동자 중에서는 신분이 확실하고 대우를 받는 편이며 주변의 지원도 든든합니다. 하지만 일본이든 한국이든 그렇지 않은 외국인들이 얼마나 많고 어떠한 처지에 있을지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었으며, 그것만으로도 JET프로그램에 참가한 의의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6. 후배 분들에게

제가 일본에 왔을 때는 마침 한류 열풍이 한창인 때였습니다. 어딜 가도 환영 받았고 한국 이야기를 듣고 싶어했으며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선배 교류원분들로부터도 좋은 때에 왔다고 말씀해 주시곤 했습니다.

지금은 어떨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국제교류원 임기가 끝나고 나서도 일본에 쫓 거주하고 있는 저로서는 사회 분위기가 얼마나 빨리, 크게 달라질 수 있는지에 매일 놀랍니다. 하지만 이것 역시 변할 것입니다. 크게는 세계 정세 등의 영향이 있겠지만 가까운 주변은 여러분의 활약으로 하나 하나 바꾸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힘내세요.





* 무단 전재, 편집, 재배포 등 절대 금지

주 대한민국의 일본국 대사관 공보문화원

문의 | 02-765-3011 ~3 (내선 140) jet@so.mofa.go.jp

JET프로그램 방문 상담을 원하실 경우에는 사전에 전화나 이메일로 연락바랍니다.

이용시간 | 월~금요일 (10:00~17:30 단, 12:00~13:30 점심시간), 대사관 휴관일 제외

주소 | 03131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4

Public Information and Cultural Center
Embassy of Japan in Korea